

칼빈의 설교환경과 설교

오현철

(성결대, 설교학)

〈한글초록〉

칼빈에 대한 많은 연구는 주로 조직신학이나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은 기독교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설교가 만든 아마도 가장 거대한 개혁이었다.”는 파티(Charles Partee)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평생을 목회자로, 설교자로 사역한 칼빈의 삶을 돌아보면 설교자 칼빈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너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그의 설교와 성경해석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자신을 성경선생으로 여기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설교라고 보았던 칼빈의 설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의미 있다. 설교는 항상 특정한 상황(context)에서 행해진다. 한 사람의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므로 그를 둘러싼 환경, 즉 설교환경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칼빈의 설교환경이랄 수 있는 칼빈 이전의 설교, 성경관, 교회관, 그의 교구이자 그가 섬겼던 회중들 삶의 전 영역이랄 수 있는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그가 사용했던 권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설교자 칼빈의 설교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칼빈처럼 별명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신학자, 목회자, 성경의 신학자, 해석

자, 교부의 학생, 논리의 대가, 행정가, 치리가, 목회신학자…….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위에 설교자였다. 칼빈은 본문을 통해 이미 주어진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충분히’ 드러내는데 신실했고, 저자의 의도에 충실했으며, 말씀중심, 본문 중심적 설교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될 뿐 아니라 회중과 하나 되기 위해 적절한 언어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파토스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파토스를 가진 열정의 사람, 확신의 설교자였다. 칼빈을 닮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마다 세워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씀에 기갈한 영혼들을 해갈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 주제어 : 칼빈, 설교환경, 성경관, 성령론, 신구약의 통일성, 회중에 대한 파토스

I. 들어가는 말

하르낙(A. Harnack)은 사도바울로부터 루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인물로 어거스틴(A. Augustinus)을 선정했고, 워필드(B. Warfield)는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탁월한 인물로 칼빈(J. Calvin)을 추천했다.¹ 칼빈은 루터와 링컨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이 쓰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조직신학이나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다. “종교개혁

¹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4), 26.

은 기독교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설교가 만든 아마도 가장 거대한 개혁이었다.”²는 파티(C. Partee)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평생을 목회자로, 설교자로 사역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설교자 칼빈’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너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그의 설교와 성경해석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³ 자신을 성경선생으로 여기고,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과업이 설교라고 보았던,⁴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학자들에 의해 책 한 권의 저자만 아니라 괄목할 만한 설교자요 주석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칼빈의 설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설교는 항상 특정한 상황(context)에서 행해진다. 실제로 설교는 단일 상황에서보다는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들(multiple overlapping and interacting contexts) 속에서 행해진다.

²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43.

³ Randall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ing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Baker, 2006), 147. 설교와 해석학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Richard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0); Barbara Pitkin, *What Pure Eyes Could See: Calvin's Doctrine of Faith in Its Exegetic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9); David C. Steimetz, “John Calvin as an Interpreter of the Bible,” *Calvin and the Bible*,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6);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trans. Keith Crim,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31 (1977); John L. Thompson, “Calvin as a Biblical Interpreter,”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4); 류웅렬,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방법론,”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제1권 (2009년 가을): 228에서 재인용. 이 외에 국내 칼빈 연구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역사적 정리는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한국에서 칼빈은 어떻게 수용되고 연구되어 왔을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SFC, 2010), 266-91을 참조할 것. 그러나 여기서도 칼빈의 설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⁴ 이와 관련해 다음을 참고하라: James Montgomery Boice, *Sermons on Psalm 119 by John Calvin* (Audubon, NJ: Old Paths, 1580 & 1996), viii; John H. Leith, “Calvin's Doctrine of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ed. Timothy Georg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0), 206.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설교는 지금 교회의 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회중과 설교자의 마음은 그리고 설교가 담고 있는 세상은 그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설교환경은 문화 환경이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문화는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양식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⁵ 설교는 문화적인 사건이다. 어떤 설교도 문화, 정치, 경제 등 주변 환경과 무관할 수 없다. 설교는 복합적인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선포된다.

설교환경은 설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설교자는 계속되는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통해 설교학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설교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장한다. 한 사람의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므로 그를 둘러싼 환경, 즉 설교환경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칼빈의 설교환경이랄 수 있는 칼빈 이전의 설교, 성경관, 교회관, 그리고 그의 교구이자 보다 큰 교회환경(church context)이었던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그가 사용했던 권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설교자 칼빈의 설교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기로 한다.

II. 칼빈의 설교환경

1. 칼빈의 약력(略歷)

1509년	프랑스 동북부 Picardy의 작은 마을 Noyon 출생
1521년	Capettes대학에서 라틴어 수학, La Gesine교회 사역

⁵ C. R. Taber,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Culture in Modern Protestant Missio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1991).

- 1523-27년 Marche대학에서 라틴어, Montaigu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 수업
- 1528-29년 Orleans대학과 Bourges대학에서 법학 공부
- 1532년 대학시절 세네카(L. Seneca)의 *De Clementia* 주석 출판
- 1534년 재세례파의 영혼수면설 교리를 논박하는 첫 신학서적 *Psychopannychia* 저술
-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발행, Lausanne 회의에서 교부들의 글을 인용해 화체설 비판, 제네바교회 설교자로 추대
- 1537년 파렐(G. Farel) 등과 함께 공저 『제네바교회와 예배조직서』 출간, 성례를 최소한 주 1회 실시할 것과 시편찬송, 청년교육, 결혼 관련 입법 강조
- 1538년 파렐과 함께 추방, Strasbourg에서 난민사역
- 1539년 『시편 찬송집』과 『기독교 강요』 2판 출판
- 1540년 『로마서 주석』 출판
- 1543년 『기독교 강요』 3판 출판
- 1550년 『기독교 강요』 4판 출판
- 1554년 처형당한 세르벤투스(M. Servetus)를 비판하는 『거룩한 삼위일체론에 관한 정통신앙 변호』 출간
- 1559년 『기독교 강요』 5판 출판
- 1564년 마지막 강의(2/2), 마지막 설교(2/6), 마지막 성찬(4/2), 마지막 호흡(5/27)⁶

⁶ 보다 자세한 설명은 T. H. L. Parker, *Calvin: A Biograph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5 & 2006)를 비롯해 수없이 많다. 만약 간단명료한 것을 찾는다면 지난 6월 5일 발행된 스페이커르(W. Spijker)의 『칼빈의 생애와 신학』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신이며 가장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오정호 외 6인 편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를 참고하라.

2. 칼빈 이전의 설교

종교개혁에서 설교는 5세기 이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지위를 차지했다. 복음은 어거스틴을 거쳐 신약성경으로 돌아갔고, 그 방식은 교부들의 설교적 훈계(homily)로 돌아갔다.⁷ ‘그리스교회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⁸ 오리겐(Oregenes Adamantius)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원천이고, 회중의 변화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목적 때문에 설교에는 반드시 교훈과 권면이 있어야 하고, 설교는 본질적으로 성경의 주해”라는 고대 설교학의 기초를 확립한 이래 그와 입장을 같이 했던 크리스소스툼(J. Chrysostom)과 어거스틴을 끝으로 5세기 동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설교의 암흑기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알레고리해석이 난무하고, 케리그마가 아닌 도덕적 권면이 주종을 이루며, 교부들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빛났던 설교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11세기 십자군 원정, 13세기 수도회 운동과 스콜라 신학의 영향이었다. 당시 스콜라 신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위적이어서⁹ 상대적으로 유머와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동원한 설교가 나타나기도 했다. 위클리프(J. Wycliffe)는 이에 다시 설교적 훈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교를 성경주해이자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했으며, 당대의 감각적인 설교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설교는 회중의 상태에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후대 루

⁷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향영철 역, 『하나님의 대언자』(서울: 익투스, 2006), 22.

⁸ Parker는 Christlieb의 이 평가를 오리겐에 대한 과소평가라며 오리겐은 서방교회와 그리스교회의 설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설교의 관행까지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15를 참고하라.

⁹ 예를 들어 주제는 인상적인 세 낱말을 포함해야 하고, 세 부분으로 분할해야 하며, 일정한 운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엄격한 규칙이 강조되었다.

터(M. Luther)와 칼빈으로 이어지고 현대설교학으로 연결되는 통전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고대설교학의 근간을 회복시켰고 그 체계를 확고히 다진 이가 바로 칼빈이었다.

3. 칼빈의 성경관

중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무엇보다도 명확한 구원론의 부재라고 하겠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sola gratia*)로서의 구원,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얻는 구원, 그 모든 비밀이 성경(*sola scriptura*)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교회의 의식과 예배를 통해 습득되는 것이 상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의식적 관계적 설교에 젖어 있거나 그로부터의 해방을 말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갈구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칼빈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 대표적인 설교자였다.

칼빈은 교회의 전통과 구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를 차지하던 시대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깊은 확신에 차서 ‘순수한’ 말씀의 기초만을 풀어주기 위해 매번 강단에 올랐다.¹⁰ 즉 설교의 신뢰와 권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다른 권위 있는 출처를 통해 성경의 주장을 확고히 하려 시도하거나 성경에서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주어진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렇게 칼빈은 영감 된 성경을 개인적으로는 민

¹⁰ Steven J. Lawson, *The Expository Genius of John Calvin* (Orlando: Reformation Trust, 2007), 25.

음으로 읽고, 공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충분히 설교함으로 회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간다고 믿었다.

칼빈은 성경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논의는 교부시대 마르시온 이단에 대한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의 변증이 기초가 되어 이후 이레니우스(Irenius), 터툴리안(Q. S. F. Tertullianus),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등에 이어지며 신구약 성경 둘은 구별하여도 나눌 수 없고 근원과 내용에 있어 하나라는 견해가 축적되어왔다. 신약은 오래 전에 의도된 구약의 목적이자 성취이며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자리한다. 칼빈에게 성경해석의 중요한 목적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비록 그 형식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통일성 안에서 구약시대와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자연히 구약 전체를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¹¹이 그의 성경관이자 성경해석의 기초였다. 그의 시편주석을 보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까운 문맥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은 이런 태도를 반영한다.¹²

칼빈의 성경관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그의 성령론이다. 푸켓(D. Puckett)에 따르면 그는 성경기록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저자의 생각과 말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고 여겼다.¹³ 즉 성령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저자의 지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을 사용했

¹¹ Calvin, *Institutes*, 2, 10, 2-5.

¹²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5,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Reprinted in 1998), 71-72.

¹³ Davi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25-37.

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성령의 기관과 도구 외에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물론 이러한 칼빈의 성령론에 입각한 성경관에 대한 이해가 설교를 언어의 전달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도 그것엔 반대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성령강림의 순간에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대로 설교자들은 “주께서 설교에 축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노력과 근면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¹⁴ 그가 설교자를 노동자에 비유하며 강조했던 것처럼¹⁵ 그들의 수고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할 때 ‘친히 그리고 함께’ 설교하며 설교자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4. 칼빈의 교회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전 20장 중 무려 19장에서 교회를 언급한다. 그 첫 장 첫 머리에서 그가 밝히고 있는 교회는 1) 하나님 이 2)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3) 회중의 연약함을 돕고, 신앙을 증진시키며 견고케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다.¹⁶ 이 기관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인간들이 원하는 곳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기초한다.¹⁷ 칼빈은 교회를 모든 회중의 어머니

¹⁴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vol. 3,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89), 788.

¹⁵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vol. 3,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316.

¹⁶ Calvin, *Institutes*, 4. 1. 1.

¹⁷ Calvin, *Institutes*, 4. 1. 2. & 2. 4.

이자 학교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온전한 상태로 세워진다는 의미에서다.¹⁸

그에 따르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오시는 영역이 바로 이 교회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회중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12)는 것이다.¹⁹ 교회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엡 2:20), 설교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성령을 통해 강력한 효력을 일으킨다(롬 11:14). 칼빈에게 있어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설교, 성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이해에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회중이다.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칼빈 설교의 특징을 단 하나만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성이다. 그가 설교를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설교는 회중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그들이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⁰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설교자는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말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투른 화법을 쓰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²¹ 파커(T. H. L. Parker)는 칼빈이 설교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 강조한 것은 회중이 교회의 설교사역에 적극적으로 되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옳

¹⁸ Calvin, *Institutes*, 4. 1. 4. 그의 디모데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¹⁹ Calvin, *Institutes*, 4. 3. 2. & 6. 9.

²⁰ Calvin, CO LIV, 151-152. 그의 디모데후서 12번째 설교.

²¹ Calvin, CO VII, 169, *Contre la secte phantastique et furieuse des Libertins qui se nomment Sprituels*; Richard Stauffer, *Calvin et Sermon*,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서울: 성서연구사, 1990), 68에서 재인용.

게 보았다.²² 회중 각자가 성례에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설교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 셈이다. 설교자는 주고 회중은 받는 게 사실이지만 받는다는 것이 수동적인 것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이고,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바울의 이해(롬 10:17)를 따른 것이다.

과거는 설교에서 회중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설교가 들려지기 위해서 회중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설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포하심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친히 그의 양떼를 부르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둘째, 설교가 들려지기 위해서 회중은 설교를 듣는 일에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즉 무비판적으로가 아니라 그 설교내용이 진실로 성경의 메시지인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여 다른 말과 구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이다.²³ 회중은 설교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설교사역에 책임이 있는 설교의 파트너이고 그들의 연합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완성된다.

칼빈은 보다 큰 교회공동체, 즉 교회의 울타리에 제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포용하는 교회환경 속에서 회중의 어머니와 학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교회가 진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즉 설교자로 세움 받은 목사의 권위와 그 가르침에 대한 성실한 자세가 결여된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와 수단으

²²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2), 49.

²³ Parker, *Calvin's Preaching*, 49-51.

로서 권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²⁴

5. 칼빈의 교구 제네바

칼빈이 27년간 섬겼던 성 피에르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교회공동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 중세의 제네바는 방탕한 도시이며 환락의 도시였다. 어떻게 이런 변화와 개혁이 가능했던 것일까?

이승진은 칼빈의 목회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교를 통한 교회 개혁의 실재를 추적하다보면 마치 칼빈은 강단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만 했었고 그 결과 칼빈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제네바 교회의 개혁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신자들의 거룩한 삶이 자동적으로 뒤따랐던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며 설교만 아니라 권징의 시행이 개혁의 두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²⁵ 권징에 대한 칼빈의 확고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네바 컨시스토리’다. 제네바 목사회 소속 목사들과 평신도 대표로서 장로들이 선발과정(제네바는 매년 2월 선거에서 시의회, 즉 소의회와 60인 시의회, 200인 시의회 의원을 뽑는데 그 중에서 각각 2명, 4명, 6명을 선발)을 거쳐 구성했고, 그 외 서기와 소환관이 있었고 의장은 네 명의 시 행정관 중 한 명이 파송되었다. 이들이 한 일은 매주 목요일에 모여 제네바 교회 신자 개개인의 신앙윤리적인 문제(예배나 성찬식 참여여부, 기도생활 등)로부터 가정윤리(결혼, 이혼, 간음, 간통, 혼외출산, 폭행 등), 교회윤리(주일성수, 성찬식, 성상숭배, 기도 및 주기도문 교육, 성경, 구교

²⁴ Calvin, *Institutes*, 4. 12. 2.

²⁵ 이승진, “칼빈의 교회개혁과 설교”,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53차 정기논문발표회 기간 행논문집」(2009년 5월) 153.

의 절기를 따르는지의 여부 등), 그리고 사회윤리(미신, 고리대금, 도박, 게임, 놀이, 우상, 추문, 말다툼 등)가지를 포함, 회중의 삶 전 영역을 감독의 대상으로 삼았다.²⁶ 의장이 교회의 대표가 아닌 시의 대표였다는 점에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 중 회중의 권징을 시행할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칼빈은 마땅히 그것을 교회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았다.²⁷

결국 1561년 교회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칼빈과 시의회와 오랫동안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교회권징의 주체가 교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질 때까지 칼빈은 말씀을 통한 개혁을 외쳤던 설교자였고, 선포된 말씀이 회중의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감독하고 권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이른 바 ‘유기적 목회시스템’의 필요성을 깊이 인지한 목회자였으며, 보다 큰 공동체로서 인구 1만 3천명의 제네바를 교구로 삼고 변화를 촉구한 개혁자였다.

III. 칼빈의 설교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의 약력을 비롯해 그의 설교환경이랄 수 있는 칼빈 이전의 설교, 성경관, 교회관, 그의 교구이자 그가 섬겼던 회중들 삶의 전 영역이랄 수 있는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그가 사용했던 권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약속한대로 여기서는 칼빈 설교의 목표, 내용, 언어와 형식을 정리하면서 그의 설교환경이 설교에 미친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설교자 칼빈을 전방위적으로 조명하기로 한다.

²⁶ Robert M. Kingdon (ed.),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1966), 35-49.

²⁷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25.

1. 설교의 목표: 성령론에 입각한 성경관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설교준비와 전달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의 목표'이다. 아담스(J. Adams)는 그의 설교학 강의를 통해 수천편의 설교를 들은 후 '빈약한 설교'가 대부분이고, 그 이유는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⁸ 만약 설교가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되려면 설교목표는 설교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지 말고 강조되어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 설교의 목표는 앞서 살펴본 그의 설교환경 중 성경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설교자는 성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미를 1) '있는 그대로' 그리고 2)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스스로 성실했던 칼빈을 레이드(J. Leith)는 '성경의 신학자'라 불렀고, 파커(T. H. L. Parker)는 '성경의 해석자'로 표현했지만²⁹ 그를 단순히 '설교자'로 규정한다 해도 모자라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있는 그대로와 충분히)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자 설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영혼 속에 경험적으로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에 대해 박완철은 그것이 그의 신학의 목표라고 보았지만³⁰ 그것은 설교에도 고스란히 그리고 사실 더 풍성하게 실현된 그의 설교목표였다.

이 목표에 성실하기 위해, 즉 있는 그대로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

²⁸ J. E. Adams, *Preaching with Purpose: The Urgent Task of Homile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2), xi.

²⁹ J. H. Leith, "John Calvin-Theologian of the Bible," *Interpretation* 25 (1971): 344; T. H. L. Parker, "Calvin the Biblical Expositor," *Churchman* 78 (1964): 78.

³⁰ 박완철, 『개혁주의설교의 원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37.

해 칼빈은 저자의 의도에 충실했다. 회심 이전에 칼빈은 인문주의자였다. 회심 후에도 그는 인문주의의 방법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고대철학자들을 찬양했고, 여전히 에라스무스와 그의 제자들을 존경했으며, 일생동안 그들의 노력과 저작들을 찬양하고 이용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³¹ 그러나 칼빈에게 회심은 하나님의 자유 앞에서 인간 자유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었다. 즉 회심이 고대철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모종의 단절을 초래한 셈이다.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던 칼빈의 ‘고전으로의 회귀’는 결국 서구문명을 이루고 있는 헬레니즘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헤브라이즘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그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학적, 과학적으로 난해한 것까지 알게 하려는 것이 모세나 선지자, 즉 성경저자들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시 136:7)³²을 분명히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문주해와 관련해 칼빈은 성경기록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저자의 생각과 말은 구별할 수 없다고 여겼다. 시편 87편 3절 주석을 보면 그가 ‘선지자가 의도하는 것’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목적’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즉 성령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저자의 지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을 사용했다고 믿는 것이다.

³¹ F. Wendel, *Calvin: sourdes et evolution de sa pensee religieuse* (Paris, 1950/Geneve, 1985), 25; 박건택, “칼빈의 삼중 이미지와 한국교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SFC, 2010), 201에서 재인용.

³² 본문은 표현된 것(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의도나 시도도 드러내지 않는다. 단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뿐. 그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³³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3, 성서교재간행회 역, 『시편3』(서울: 성서교재간행회, 1993), 494-505.

칼빈은 성경의 영감설, 즉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구체적으로는 본문석의를 포함한 설교과정에서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령론에 입각한 그의 성경관, 즉 성령의 인도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성경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 있게 설교할 때만 설교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의 이해는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확신이기도 했다. 물론 이 말이 예배는 설교로만 이루어진다거나 설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배는 설교 외에도 여러 신학적, 예배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중세시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설교를 강화하려는 개혁주의자들의 시도가 ‘예배=설교’라는 잘못된 예배이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본고가 칼빈의 설교환경으로 예전적 환경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기서 예배와 설교와의 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이상의 논의는 추후과제로 삼기로 한다.

2. 설교의 내용: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해서

칼빈신학의 중심교리 또는 중심사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것은 대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성경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다. 전자를 지지하는 크라우스(Hans-Joachim Kraus)에 따르면 칼빈에게 성경해석의 중요한 목적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³⁴ 이는 앞서 설교환경에서 살

³⁴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 (1977): 9-18.

핀 대로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비록 그 형식은 달리 나타난다 해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통일성 안에서 구약시대와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 전체를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다윗의 개인적인 시련들은 그 당시 다윗 개인의 생애나 왕정시대의 정치사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겪으실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루터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했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그레이다누스(S. Greidanus)에 따르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심을 가지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주목했고 칼빈은 보다 넓은 관점,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관심을 보였다. 칼빈은 이런 넓은 관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성경메시지에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³⁷

사실 칼빈이 신구약의 통일성에 기초해 그리스도를 강조하였지만 그렇다고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반드시 설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라슨(D. Larsen)이나 골즈워드(G. Goldsworthy), 존슨(D. Johnson) 등과는 분명 입장이 다르다.³⁸ 오히려 그는 이 양자를 균형 있게 붙들고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³⁵ Calvin, *Institutes*, 2, 10, 2-5.

³⁶ 이와 관련해 다음을 참고하라. Stephen Edmonson, “Christ and History: Hermeneutical Convergence in Calvin and Its Challenge to Biblical Theology,” *Modern Theology* 21/1 (2005, Jan): 24.

³⁷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127.

로 표현한 류응렬의 견해에 동의한다.³⁹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설교는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이라 말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중심과 그 성취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칼빈의 설교는 말씀중심 또는 본문 중심적이다. 어떤 관점에 의해서라기보다 말씀자체가 계시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고 설교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대의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복음의 동정녀탄생과 너무 쉽게, 본문의 배경이나 문맥을 통해 논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⁴⁰ 즉 신구약의 통일성에 기초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시도는 언제나 본문에 대한 객관적인 주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본인의 설교에서부터 입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헷셀링크(I. Hesselink)가 주장한 기독교적, 성령론적, 삼위일체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라는 칼빈에 대한 평가를 의미 있게 수용하면서도⁴¹ 그보다는 말씀중심, 본문 중심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³⁸ David 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Identifying the Issues in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Kregel, 1989), 167-68;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0); Dennis E. Johnson,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 (Phillipsburg: P&R, 2007).

³⁹ 류응렬,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방법론,” 250.

⁴⁰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1,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Michigan, 1979), 244-49.

⁴¹ I. John Hesselink, “Calvin’s Theology,” Edited by Donald K. McKim,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4), 78-84; 오정호 외 6인 편,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83-85에서 재인용.

3. 설교의 언어와 전달: 회중에 대한 파토스와 관련해서

단순, 명료, 친숙, 함축, 단문, 즉흥, 생동. 이는 칼빈 설교의 언어와 형식을 특징짓는 표현이다. 중세시대를 관통해 온 그는 앞서 설교환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칼빈 이전의 설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자연스럽게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 등 교부들의 저작과 설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칼빈은 설교적 훈계를 담은 강해설교를 책별로 그리고 절별로 설교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몇몇 청교도들이 한 것처럼 긴 문장이나 산문체를 사용하는 대신 주로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주어 동사를 통한 단문을 사용하였다. 그의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긴 문장들도 사실은 단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⁴² 설교는 회중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그들이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회중과 소통하기 위해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은유법, 의인법, 수사학적 질문, 과장법 등을 사용했으며⁴³ 자신의 인간적 개성을 설교에 집어넣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파커는 그가 성경의 메시지를 친숙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숙한 방식, 즉 일상생활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강조했다.⁴⁴ 욥기 설교에서 그가 속담을 이용하는가 하면 청년들을 수탉(roosters)에 비교했던 것들이 그 단적인 예이다.⁴⁵

레이놀즈(B. Reynolds)에 따르면 그의 설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⁴² Steven J. Lawson, *The Expository Genius of John Calvin*, 87.

⁴³ Q. Breen, "John Calvin and the Rhetorical Tradition," ed. N. P. Ross, *Christianity and Humanism* (Grand Rapids: Eerdmans, 1950), 125-27.

⁴⁴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2), 139.

⁴⁵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서문강 역, 『칼빈의 욥기강해』(서울: 지평서원, 1996)를 보라.

것과 달리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이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내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회중의 감성에 호소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이는 푸켓의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칼빈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의 슬픔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태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⁷ 바른 설교 또는 성경적 설교는 본문의 내용과 기능이 설교에 잘 반영되는 설교다. 즉 성경이 그 내용을 지배할 때, 설교의 역할이 성경의 역할과 동일할 때 진정한 성경적 설교라 할 수 있다. 설교의 역할이 성경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설교가 본문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말하는가 하는 문제이고,⁴⁸ 이차적으로는 본문의 기능과 형식, 즉 특정단어나 특정구조가 사용되고 반복, 시제변경, 구약인용, 장르 등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설교에 담아내는가 하는 것으로 성경의 신학자요 해석자로 불리었던 칼빈의 설교에서 무리 없이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덧붙여 칼빈의 설교는 본문의 감성이 설교자에게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 회중에게 전이되는, 설교자 개인의 감정노출이 아니라 본문의 감성을 담아내는 설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다.

이것이 설교자의 본문에 대한 파토스다. 그 본문에 대한 열정은 설교자의 확신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설교를 믿음의 행위로 이해할 때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기도, 회개, 권위 있는 목소리, 자기 확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셔서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 속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 확신에 있

⁴⁶ B. Reynolds, *The Relationship of Calvin to Process Theology as Seen through His Sermons* (Lampeter: The Edwin Mellen, 1993), 27-37.

⁴⁷ Davi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25-37.

⁴⁸ 류용렬, "Homiletic Theology and Preaching of Hyungnyong Park," 『복음과실천신학』 제19권 (2009년 봄): 281.

어서는 몰라도 말씀확신에 있어서는 어느 한 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던 확신의 사람, 확신의 설교자였다면 역사 속 칼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파토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설교커뮤니케이션의 한 파트너로서 회중에 대한 파토스를 가진 열정의 사람, 확신의 설교자였다.

칼빈에 따르면 설교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론(exposition)과 적용(application)이다. 제네바에서 그의 사역은 성경의 많은 책들을 강론한 것이었다. 그러나 설교는 강론 그 이상이다. 설명과 해석은 신학생들에게 충분하다. 그러나 설교강단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권고와 실천적 적용은 강단 사역의 핵심이며 모든 설교에 등장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이 적용을 강조한 이유이고 칼빈을 신학자나 해석자만 아니라 설교자로 부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 칼빈의 설교환경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교회환경이자 보다 넓은 의미의 설교환경으로서 제네바를 방탕한 도시이자 환락의 도시로 소개했었다. 그리고 칼빈이 27년간 섬겼던 성 피에르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교회공동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도 말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설교만 아니라 권징의 시행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바꿔 말하면 권징만 아니라 설교 때문이기도 하다. 제네바라고 하는 설교환경, 즉 목회와 설교 현실 따로 설교 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현장을 관통하는, 상황에 토대한, 적용에 능한 설교가 있었기에 그러한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회중의 파토스를 얻는 것은 수사학의 기교나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파토스에 있다.

IV. 나가는 말: 설교자 칼빈

칼빈처럼 별명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신학자, 목회자, 성경의 신학자, 해석자, 교부의 학생, 논리의 대가, 행정가, 치리가, 목회신학자…….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위에 설교자였다. 그가 에베소서 주석과 기독교강요에 기록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로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함으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게 하고, 회중을 교육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며, 신앙의 일치와 질서를 유지했던 설교자였다.⁴⁹

칼빈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말한 권위는 설교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설교자를 교회에 세우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통해 친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설교자에게 권위나 영광을 부여하지 않는다.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고 본문의 종일뿐이다. 회중과 다를 바 없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권위다. 단 그것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주어지는 ‘강단에서의 권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데서 오는 ‘우리 밖에서 주어진 권위’다. 설교(자)의 권위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소명, 직분에 있지 않고 칼빈이 바르게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로이드 존스(M. Lloyd-Jones)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 말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⁴⁹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몇 차이를 보이는 입장을 위해서 안인섭,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의 설교방향,” 한국개혁신학회, 「제26회 정기학술심포지엄 기간행는 문집」, (2009년 5월)과 조병하, 이은재의 논평을 참고하라.

그렇지 못할 때 회중은 설교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안다. 설교자만 모른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줄을.

칼빈은 본문을 통해 이미 주어진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충분히’ 드러내는데 신실했고, 저자의 의도에 충실했으며, 말씀중심, 본문 중심적 설교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될 뿐 아니라 회중과 하나 되기 위해 적절한 언어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파토스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파토스를 가진 열정의 사람, 확신의 설교자였다. 그가 중세의 기갈한 회중을 해갈했다면 오늘날 이 땅에도 칼빈을 닮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마다 세워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씀에 기갈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갈의 은총을 맛보여주길 기도한다.

〈Abstract〉

Calvin' s Preaching Context and Preaching

Hyun-Chul Oh

(Sungkyul University, Homiletics)

Although much researches have been done regarding his theology, yet the interest in Calvin' s preaching was not enough. It is therefore meaningful to examine the preaching of Calvin who considered himself as a Bible-teacher and thought preaching his calling God gave. Preaching is practicing always in the specific context. For understanding one' s preaching righ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his or her surroundings that is called preaching context. In that reason, this study first concentrated on the sermons before Calvin, his viewpoint of the Bible, Church and Geneva Consistory. With the result came out of the first work, the researcher tried to build Calvin' s preaching omni-directionally. Although he had been called by many names such as a theologian, pastor, interpreter, administrator, but Calvin was a preacher above all. He was sincere enough to show the biblical truth as it was and as much as he could. His text-centered preaching was faithful enough to reveal the intention of the biblical authors and did not divide the Word from the Spirit. Besides, he took good care of the congregations who listened to his sermon with easy and proper words they used most. Calvin the preacher was a man of passion to God and God' s

people and a man of confidence of the Bible as God's Word. The researcher hopes to see many preachers who live and lead like Calvin in the Korean church so that they could appease world's thirst as he had done in his time.

*** Key-words:** Calvin, preaching context, viewpoint of the Bible, pneumatology, unity of Scripture, pathos to congregation

〈참고문헌〉

- 류응렬. "Homiletic Theology and Preaching of Hyungnyong Park."
「복음과실천신학」 제19권 (2009년 봄): 262-84.
- _____.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방법론". 「설교한국」 제1권
(2009년 가을): 226-65.
- 박건택. "칼빈의 삼중 이미지와 한국교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회.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SFC, 2010. 192-211.
- 박완철. 『개혁주의설교의 원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 오정호 외 6인.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한국에서 칼빈은 어떻게 수용되고 연구
되어 왔을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칼빈과 한
국교회』. 서울: SFC, 2010. 266-91.
- 이승진. "칼빈의 교회개혁과 설교".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53차 정기
논문발표회 미간행논문집」 (2009년 5 월): 141-58.

- Adams, J. E. *Preaching with Purpose: The Urgent Task of Homile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Breen, Q. "John Calvin and the Rhetorical Tradition." Edited by N. P. Ross. *Christianity and Humanism*. Grand Rapids: Eerdmans, 1950.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5. Translated by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Reprinted in 1998.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서문강 역. 『칼빈의 율기 강해』. 서울: 지평서원, 1996.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3. 성서교재간행회 역. 『시편3』. 서울: 성서교재간행회, 1993.
- _____.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Vol. 3.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89.
- _____.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Vol. 3.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1.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Michigan, 1979.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ited by John T. McNeill & Translated by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Edmonson, Stephen. "Christ and History: Hermeneutical Convergence in Calvin and Its Challenge to Biblical Theology." *Modern Theology* 21/1 (2005, Jan): 3-35.
- Goldsworthy, Graeme.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0.
-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 Hesselink, I. John. "Calvin's Theology." Edited by Donald K. McKim.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4. 78-84.
- Johnson, Dennis E.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 Phillipsburg: P&R, 2007.
- Kingdon, Robert M.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1966.
- Kraus, Hans-Joachim.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 (1977): 9-18.
- Larsen, David. *The Anatomy of Preaching: Identifying the Issues in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Kregel, 1989.
- Lawson, Steven J. *The Expository Genius of John Calvin*. Orlando: Reformation Trust, 2007.
- Leith, J. H. "John Calvin-Theologian of the Bible." *Interpretation* 25 (1971): 329-44.
- Oberman, H. A. "Preaching and the Word in the Reformation." *Theology Today* 18 (1961): 26-28.

- Parker, J. I. "Calvin the Theologian." *John Calvin*. Translated by G. S. R. Cox. Appleford: The Sutton Courtenay, 1966.
- Parker, T. H. L. *The Oracles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황영철 역. 『하나님의 대언자』. 서울: 익투스, 2006.
- _____.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2.
- _____. *Calvin: A Biograph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5 & 2006.
- _____. "Calvin the Biblical Expositor." *Churchman* 78 (1964): 23-32.
- Partee, Charles.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 Puckett, Davi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 Reynolds, B. *The Relationship of Calvin to Process Theology as Seen through His Sermons*. Lampeter: The Edwin Mellen, 1993.
- Stauffer, Richard. *Calvin et Sermon*.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성서연구사, 1990.
- Taber, C. R.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Culture in Modern Protestant Missio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1991.
- Wallace, R.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Edinburgh: Scottish Academic, 1988.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수원: 합신 대학원출판부, 2008.

Zachman, Randall C.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ing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Baker, 2006.